

의류학 분야 토의 종합보고

연세대학교 교수 김혜경

의생활 분야는 사회변천에 따른 의류학의 영역에 관하여 과학분야와 복식분야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과학분야에서는

서울농대 최정화 교수님이 피복위생학의 영역에 관하여

서울대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님이 의류과학의 영역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고

복식분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임숙자 교수님이 복식사회학 영역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김영인 교수님이 의상디자인 및 의복구성 분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이들내용과 여러 회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의류 과학 분야는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달 추세에 관하여 언급해 주셨습니다. 섬유산업은 16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방적기술의 발달을 시점으로 1950년대 나일론등 합성섬유가 개발된 이후 최근에는 섬유가공 및 재질에 역점을 두고 발전하는 단계로 변화 되어 왔습니다. 또 섬유산업은 이제 의류분야에 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소재로서 우주 항공과학 등에도 적용되는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가정학이 전문화 되어 가면서 섬유과학 분야만해도 6개분야 이상으로 세분화 내지는 전문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학에서의 의류과학의 역할은 두가지 측면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문분야간의 연계를 가지고, 특히 전통적

가사노동이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의류과학이 복식산업의 upstream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미래의 의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 및 기능화, 편리성 등이 추구된 의복을 생산함에 있어, 이들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선도할수 있는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이나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개개인이 존중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복위생학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70년대에는 극히 미진한 상태였으며 현재, 198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뚜렷한 경향을 찾아 볼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의복기후의 측정이나 착의량조사등 추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의복위생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쾌적성이나 comfort등 편리함을 추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피복위생학을 예측해 본다면

섬유산업의 변화와 의생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섬유산업의 자동화, 로봇틱스,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 및 의생활의 고급화, 기능화, 다양화, 개성화, 편리성등이 추구되므로 이를 근거로 몇가지 연구영역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작업능률을 최대화하는 온열감각등의 쾌적성 및 동작적응성을 최대화 하는 기능성을 가진 의복의 제시와

둘째는, 첫번째 제시된 것과 이율배반적인 상황으로 쾌적한 의복착용시의 문제점 즉 체온조절기능의 감퇴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내용으로는, 환경, 작업

등의 조건에 따른 착의량, 보온력등의 기준치 설정, 환경에 따른 보온력 변화 예상치, 인체생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들수 있으며 이들 연구 및 교육의 결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생활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의복구성 및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의 의생활의 변천을 들 수 있습니다.

즉 70년대 이후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으로 내구성 저가품이 개발되었으며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으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화학공업의 지원으로 섬유산업 발전의 둔화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의류산업의 특징으로는 원료생산 측면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제품의 고급화 경향을 볼수 있고 의류제품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치수의 설정이나 패션성 디자인의 필요성 또 국내적으로는 기성복산업의 확장과 brand의 증가등을 들수 있습니다.

미래의 의류산업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것이므로 연구나 교육도 이에 부응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상디자인도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창의성 개발이 요구되며, 정보시스템의 이용능력 및 기타 수반되는 지식의 습득과 함께 신소재의 이해 및 활용, 또 인체공학적 특성이 분석되어 제작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식 사회학 분야는 연구내용, 교육내용 및 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 되었습니다.

첫째, 연구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론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의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문제에 입각한 실용이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문제 해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 실제적 차원의 교육보다는 이론적 차원의 교육이 중시되어 왔으나 앞으로 의류학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현장근무 실태파악을 포함한 의류업체 종사자들의 재교육도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연구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미래가 정보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하여 산학 협동체제 아래, 업체들의 연구과제의 의뢰와 요청등 좀더 긴밀한 협조 아래 특히 학계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산업체와 관공기관 정부관련 부서와 능동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류산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경과를 종합하면

사회변천의 요인과 의생활의 변천 및 이에 따른 연구 및 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변천의 큰 흐름을 정보화 시대로 특징 지을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능력등 교육의 방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산학의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의류산업의 활성화 및 연구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의생활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및 기능화를 들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복생산의 선도적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가정학자로서의 역할은 개개인을 존중하고, 환경 오염이나 쾌적성등 생태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교육되어야 할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식생활 분야 발표 토의 종합보고

상명여대 교수 유 춘 희

우선 식품학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이해수교수님은 가정학에 속해 있는 식품전공 분야의 뿌리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즉 가정학에서의 식품분야는 어디까지나 조리원리와 조리과학을 구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가정학의 설립목적중의 하나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맛있고 영양가 높은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었고 가정학의 식품전공분야는 상품으로서의 가공식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상행위와 관련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가정학의 식품분야에서 가공식품 개발을 포함하는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꾸거나 영역을 확대하면 타대학 식품공학과나 식품가공학과와의 내용이 겹쳐짐으로써 가정대학 식품전공 분야의 독자성이 희박해질 것이고, 가정대학이라는 명칭을 반대한다면 다른 학과로 흡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가정대학의 식품전공 분야는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의 전문영역과 독자성을 확고히 구축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을 확장 또는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다른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학에 존속하려면 식품전공 분야를 자타가 학문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세대학교 윤선 교수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천과 함께 식생활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는 미래에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학문의 급속한 발전, 식품의 국제화, 식품유통구조의 변화, 단체급식과 외식산업의 발전, 식생활 문화의 다양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요구의 다양

화, 정보화 사회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급증 등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가정학과는 사회변천에 민감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선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급속한 사회 변천을 무시하고 현재의 범주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가정학 내의 식품학은 점차 왜소하여지고 무기력해 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 영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두분 교수의 견해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즉, 과거에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조리부분도 많이 산업화하였고 앞으로는 이 경향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정학에서 조리과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 교육내용으로 수용함으로써 조리의 산업화에 동참하여야 한다, 또는 식품산업은 주로 남성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학의 식품학은 조리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 양자를 다 택해야 한다는 등, 활발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고, 결국은 조리과학과 조리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식생활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영양학의 영역에 관하여는 이화여대 김화영 교수와 숙명여대 승정자 교수께서 매우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두분 모두 미래의 사회에서 예견되는 변화와 그에 대응해서 수용해야 할 영양학을 구체적으로 정리 발표하였다. 즉 앞으로의 사회는 노령화 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수명연장,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방법 등 노인영양 문제가 영양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리라고 보았다. 또 질병구조가 달라져 병균에 의한 전염병이나 영양결핍증등은 대부분 정복되고 만성퇴행성 질병의 발병이 빈번해 짐

으로써 이들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식사법, 이러한 질병환자들을 위한 특수식이등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질 것이다. 또 가족 구성 및 역할의 변화로 가정내에서의 식사 빈도는 줄고 외식의 기회가 많아지며 대량생산되는 식품의 영양, 위생, 맛, 안전 등에 대한 개인의 비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화한 다양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사지침 또는 식품의 개발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 능률위주의 생활을 위한 편의식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져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 및 전수도 중요한 분야가 되리라고 지적되었다. 한편 발달된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영양학 분야의 연구도 전에는 불가능했던 차원 높은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특히 식품영양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컴퓨터등을 이 학문 분야에서 응용해야

하리라고 보았다.

참석자들은 두분 발표자의 견해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나 몇가지 보충 견해가 제시되었다. 앞으로 행동(두뇌)과 영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학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식품학과 영양학의 접목으로 '식품'의 정의와 'good nutrition'의 정의를 재정립할 때가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었다. 즉 식품가공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게 생산되는 식품이 인체에 다 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학 지식의 대중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호한 'good nutrituon'의 개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 타학문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학문간의 gap을 없애기 위한 심층적인 영양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정관리학분야 토의 종합보고

성균관대학교 지영숙

가정관리학분야에서는 각각의 5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독자성과 또한 종합과학으로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변천"이라는 대전제에서 각 영역들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 공헌을 위해 대처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그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각 영역별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관리학 영역에서는 최근의 학문 경향이 종합화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여러 요소와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연구의 근간으로 하는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특성과 그에 대한 학문적 위상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서 체계론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의 생활에 맞는 체계모형의 개발과 각종 자원 사용의 모형제시가 필요하며, 생활주체론의 입장에서 생활실태 접근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내용의 심화와 지속성, 그리고 연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거학 영역에서는 가정학의 학문적 관점에서 주거학은 생활자에 중점을 둔 생활학임을 강조하여 거주자의 생활과 주거환경 사이의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적 시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게 연구분야와 훈련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분야의 능력 개발에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주거환경계획 영역, 주거경제정책 영역, 주거사회문화 영역, 주거의장 영역이 제시되었습니다.

3. 가족학 영역에서는 사회변천과의 관련성이 어느 영역보다 두드러지다는 인식아래 종래 보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창의

적인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 사회통계방법에 의한 양적 연구외에 사례연구, 참여관찰, 편지, 일기, 신문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4. 아동학 영역에서는 아동학의 역할이 현상을 이해하고 교육의 장에서 가르치는 것 뿐아니라 사회변천에 따른 아동과 부모문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지원해 주는 아동학의 영역으로서 아동상담과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그리고 아동(가족)정책의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상담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여러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으며, 프로그램개발과 정책면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전공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소비자학 영역에서는 그 연구대상을 소비자의 욕구, 태도, 소비자의 특성,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환경과의 관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문제의 규명과 정책수립의 방향설정, 소비자 교육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학문분야와 함께 학제연구의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준하여 대학에서의 교과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각 영역에서 발표된 내용은 교과과정의 편성이나 학과의 개설 또는 학문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가족학과 가정관리학의 접근이 학제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양측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가정교육분야 발표 토의 종합보고

공주사대 명예교수 주 정 숙

1. 社會變遷에 따른 家政科 教育 영역

(1)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에 對하여

A. 중학교

- 4次 교육과정 實學·家政의 선택 과목 시간이 (5~7)이던 것이 5次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4~6)으로서 시간수가 감소되었다.
- 5次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에 따라서는 가정을 배우지 않고 기술·가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B. 고등학교

- 4次에서는 이수단위가 실업가정이 8~10단위이던 것이 5次에서는 8단위로 시간수가 감소되었다.
- 4次에서는 산업기술 과목이 신설되었고 5次에서는 정보산업과목이 신설되어 앞으로 大學入試과목에 정보산업이 선택되면 가사를 정규시간에 배울 학생이 없어질 수 있다.

C. 실업계 고등학교

1988. 3. 31. 문교부 고시에 의하여 가정과가 없어도 유아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관광과의 5개과가 신설되었다.

2. 社會變遷에 따른 家政科教育學의 教育令域

(1) 가정과교육의 발달과정

- 60~70年代에 家政大學의 開設에 依하여 家政科 教育은 家政學의 발전에 가려져 量的 증가는 하면서 質的 發展은 따라가지 못하였다.
- 1988年 韓國家政科 教育學會가 창립되어 89年에 學會誌를 창간한 것은 家政科 教育學의 發展에 기대가 크다.

(2) 교육과정을 통해 본 家政科 教育學의 영역

• 家政科 教育學의 學問的 性格 家政學과 教育學을 기초로 하여 家政科 教育에 관한 본질을 연구하고 교수·학습과정을 분석·구성하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행하는 과학이다.

• 家政科 教育學의 目標은 中等學敎 家政科 教師 養成에 있다. 가정과가사의 지도영역을 연계되어 논의하여야 한다.

• 大學의 家政敎育科 敎育과정은 영역별 구성이 敎養, 敎育敎職, 家政敎職, 家政公勞, 家政專門 分野의 5영역이다.

• 家政科 教育學 領域 方向은 1. 生活技術, 2. 人間關係의 生活, 3. 人間發達관계의 生活, 4. 生産·消費生活, 5. 文化生活 등의 5個部門이다.

(3) 앞으로 고려되고 적극 시행할 문제

- 男女 兩性이 差別없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 大學院과정에 家政科 教育學 전공을 반드시 두어 學問的 深度를 더할 것.
- 家政科 教育學 敎育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에게 中·高等學校 家政科 教師 資格을 부여할 것
- 현직 교사의 연구 기회 부여할 것

3. 질의

A. 질문 : 1993年 敎育과정 改定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포항제철고등학교 이순미 교사 질문)

답 : 1993年에 文敎部에서 시행시기를 그때 정하므로 지금은 알 수 없음.

B. 토론1 : 가정은 입시범위가 많아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서울 교육대학 조순옥)

• 토론 2 : 일선 중등계 교사들은 가정은 범위가

넓고 많아서 입시공부하기 어렵고 가사는 범위가 좁으니 입시과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공주대 주정숙).

- 토론 3 : 문교부에 가정 전공 장학관이 없어 男子들의 의견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문제다.

- 토론 4 : 가정과 교육은 가정 전용자는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大學에 못가는 학생들을 위한 실제 生活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원광대학교 김정훈)